



설문대할망이 치유의 춤이 되고 노래가 되어

“파괴적으로 변해 가는 제주 문화 기록”

15회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돌문화공원 온라인 행사로 세미나·설문대할망제·공연 백운철 토우 작품 사진전도



오권준 작가가 기록한 백운철의 '토우' 작품. 돌문화공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

제주 돌문화와 설문대할망 설화를 모티브로 조성된 제주돌문화공원이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연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월로 옮겨 축소 운영했지만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종전처럼 5월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은 2007년 제주돌문화공원이 5월 한 달을 '설문대할망의 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설문대할망을 "제주를 창조한 신화 속 여신이자 우리 제주인의 모성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 이를 기리고 제주 창조 신화와 문화를 발전·전승하기 위한 취지다.

15회째를 맞는 올해는 세미나, 공연, 전시 등으로 꾸며졌다. 이들 프로그램은 영상 녹화 후 온라인에서 공유된다. 이달 14-31일에는 돌문화공원 홈페이지에서 '토우 사진전'이 열린다. 탐라목석원을 운영했던 백운철 원장이 틈틈이 빚었던 토우를 오권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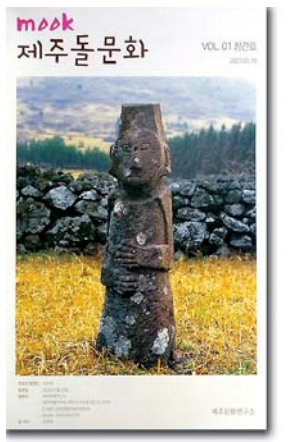
가가 촬영한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선보인다. 오 작가가 제주돌문화공원으로 목석원 설치물이 옮겨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지막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만난 토우들 3년에 걸쳐 작업한 작품들이다.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 토우는 흑백조의 담백한 화면에 개별 작품들의 미세한 음

직임을 더해 생명력을 부각시켰다.

이달 21일부터는 공연 영상 등도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 신화를 소재로 만든 김기인춤문화재단의 '스스로 춤, 스스로 되기', 9명의 제관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설문대 주관 '설문대할망제', 정신에 총괄 연출·김남호 공연 기획으로 펼쳐지는 제천 의식인 '설문대아리랑', 진도 셋김굿을 바탕으로 코로나에 신음하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치유를 담아낸 아트프로젝트 나무꽃의 '천명 하늘을 울린다'를 홈페이지에 올린다.

앞서 이달 14일엔 '할망신화 미완의 모성성이 지닌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온라인 줌을 이용해 '설문 대(設問 大) 세미나'를 개최했다. '설문대할망신화 안에서의 미완의 모성성(허남춘)', '설문대할망신화, 신화의 섬, 제주를 넘어서다'(김선자), '4차산업혁명시대와 할망신화 모성성의 현재적 의미(강득희)'에 대한 발표가 예정됐다. 전선희기자

김유정 평론가 무크 제작 '제주 돌문화' 창간호 발간 '문석인 연구' 연재 등 수록



못다 한 제주 돌문화 이야기를 풀어내고 파괴적으로 변해 가는 제주 문화를 기록하겠다는 사정이 있다. 부정기 출판물인 무크(mook)지 '제주 돌문화'를 창간한 미술평론가 김유정 제주문화연구소장이다.

5월 10일자로 창간호를 낸 '제주 돌문화'는 10쪽 분량에 걸쳐 전 지면을 컬러로 제작했다. 글과 사진을 더해 변화하는 제주와 함께 생생, 소멸하는 돌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김유정 소장이 제주 돌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은 '픽처(Picture)'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픽처'를 '세계를 재현하고, 연구하며 이해하는 수단이고, 그것은 지식인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 점에 주목했다. 픽처는 직역하면 그림을 일컫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선 회화, 초상, 사진을 아우르고 원시 동굴 벽화에서 동시대 회화를 거쳐 지금의 스마트폰 창작의 범위를 모두 포괄한다는 것이다.

비정기적인 무크의 '이점'을 살려갈 수 있을 만큼 가고, 될 수 있을 때 쉬면 된다는 심정으로 분량과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 제주 문화에 대한 생각을 '제주 돌문화'에 쏟아내겠다는 그는 이번 호에서 산담, 동자석, 발담, 원담, 거울, 도대, 굿돌을 다뤘고 연재물로 '제주도 문석인 연구-제주 돌 조각을 말한다'를 실었다. 거기에 사라지는 돌담이나 석상을 어떻게 지켜낼지 궁리하기는커녕, 온갖 미화와 신도 불이 청송에만 급급한 채 되레 멸실과 파괴를 부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김 소장은 "지금도 새롭게 발굴해야 할 돌문화와 제주 문화, 예술의 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이 무크가 제주도 돌문화를 표현한 픽처들을 만나는 지상(紙上) 창구가 되고 돌문화를 발굴·기록하는 사람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구독 문의는 이메일(jc1108@hanmail.net)이나 전화(010-6789-9775)로 하면 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사진에 담은 '제주 돌문화' 랜선으로

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온라인 사진단체연합전시 단체상 '섬 빛 사진동호회' 개인 부문 십결상도 선정

역 사진인들의 가장 큰 행사로 꼽힌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8월 31일까지 온라인 '제주사진갤러리'(http://www.gallery.jejujupask.com)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합전에는 23개 단체 회원과 개인 5명이 총 284점을 출품했다. 특히 올해는 '제주의 돌문화'를 주제로 제주 섬의 돌 이야기를 포착한 사진들이 나왔다.

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섬 빛 사진동호회'를 단체상 수상 단체로 선정했다. 전 회원이 출품했고 제주 돌문화의 다양한 면모들을 골고루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결상 김영식(제주도건축사회 사진가회)의 '선율리 돌창고'.

개인상 부문인 '십결상'도 뽑았다. 수상자는 제주여성사진동호회 오연심('한라노우조움'), 제주카메라클럽 현종배('가파도 돌담과 운해'), 제주기록사진가협회 문창규('물방'), 제주상록사진학회 양성호('휴'), 제주환경사

진연합회 문규선('장독대'), 모슬포카메라클럽 오인수('추사'), 녹색사진연구회 정찬선('몽돌'), 한국국제사건교류회 이정희('힐링'), 포스9 강주경('나'), 제주도건축사회사진가회 김영식('선율리 돌창고')씨로 저마다의 시선과 색다른 감각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창훈 회장은 "이번 연합전을 통해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제주 돌문화의 아름다운 경관 가치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이버갤러리를 구축해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람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분청사기의 재해석... 도자기 위 기록

고은지·이혜지 도예 개인전 이달 15-29일 심현갤러리

제주대 석사학위취득전을 겸한 이번 도예전은 두 작가에게 첫 개인전으로 준비됐다.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공예디자인을 전공하는 이들은 각기 다른 빛깔로 관객들과 만난다.

고은지 작가는 '결합(수많은 결을 합하다)'을 주제로 작품전을 펼친다. '은고지신'을 기반으로 분청사기

를 재해석하고 변용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통을 현대화시켰다.

고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만들어낸 분청사기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작품을 제작했다. 분청사기 박지기법의 재해석과 변용을 통해 도자 합(뚜껑 있는 그릇)을 개발하고 제주 자연에서 얻은 토양을 이용한 도예용 유약을 만들어 지역 색이 묻어나는 도자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혜지 작가는 '기록(器錄)'을 주

제로 정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한 일상의 경험들을 도자기(器) 위에 기록(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작가는 공판화의 일종인 실크스 크린 기법을 주로 사용해 도자기에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도자기 표면에 직접 잉크를 투과시키는 직접 전사 방식과 새기고자 하는 이미지를 전사지로 만들어 도자기 표면에 옮기는 간접 전사 방식을 썼다. 도예 작업의 문양 표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쬐지

월정아트센터 개관 기념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 들어선 월정아트센터가 '월정아트센터'가 문을 열었다.

월정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숙박, 외식, 해양레저, 문화예술 등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다.

월정아트센터는 개관 기념전으로 5월 한 달 동안 '월정, 예술을 만나다'를 주제로 전시를 펼친다. 김연화, 노반, 한지연, 김성진, 황정희, 신승훈, 우진숙, 차재영, 이하나, 오지우, 한상운, 김효정, 창유진, 장은우, DANA(송지민) 작가가 출품했다. 개그맨에서 작가로 변신한 임하룡,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박성진 교수도 특별 초대됐다. 월정아트센터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문의 784-9050.

노인성 별해설사 모집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이사장 윤봉택)가 2021년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활용사업으로 '코로나 극복 프로젝트-뫼! 남극노인성'에 참여할 별해설사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로 6기를 맞는 남극노인성 별해설사는 별보기에 관심이 많고 별관측이 가능한 야간, 새벽 시간대 행사 참여에 무리가 없는 건장한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탐라문화유산보존회 홈페이지(www.tamna2015.com)에 접속하면 된다. 참가자 모집은 이달 21일까지 전화(064-739-2017) 또는 문자(010-7185-0322)로 이뤄진다. 별해설사들에게겐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취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용 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친구들(순환배수구)

취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 용 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은하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현 창 익**

취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초대)



김 용 구
前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제주일고 18회 前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초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제18회 동창회
회장 **강 동 우** 외 동창 일동